

희망의  
호씨

MIRACLE

기적,

함께

TOGETHER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재단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 더미라클스



2014년 12월 더미라클스 발족

더미라클스는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1억 원 이상 기부 시 어린이재활병원 내 기부자벽을 설치해드립니다.  
3억 원 이상 기부 시 기부자 명의로 어린이재활병원 치료실을 명명해드립니다.

가입문의 02-6395-7002

## Contents

- 4 푸르메 인연  
이지선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따뜻한 길을 함께 걷는 '우리'라는 이름
- 6 푸르메 포커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아주 특별한 병원, 문을 열다
- 10 기적을 만드는 기업  
한국존슨앤드존슨  
장애어린이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다
- 11 기적을 만드는 기업인  
정다정 메디데이터 코리아 홍보 이사  
푸르메재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변화
- 12 착한 가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전이 빙글빙글, 나눔이 차곡차곡
- 13 기적을 이끄는 사람  
박종욱 기부자  
날마다 행복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 14 기적을 꿈꾸는 어린이  
이수진·이지운 모녀  
웃을 수 있는 이유, 나눔

## Cover Story



1명이 1만 명이 되어 함께 이룬 기적.  
장애어린이들이 매일 매일 축제처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공간. 활짝 열린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통권	제2호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발행인	강지원
발행처	푸르메재단
주소	03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전화	02-720-7002
팩스	02-720-7025
디자인	슬로워크

모든 글, 사진, 그림은 푸르메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뜻한 길을 함께 걷는 '우리'라는 이름

이지선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UCLA 사회복지학 박사)

“푸르메재단이 걸어가는 따뜻한 길에 동행해주시길,  
아름다운 일에 증인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좌) 2009년 뉴욕시민마라톤 대회에서 재활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42.195km 풀코스 결승점에 들어오고 있는 이지선 홍보대사

(우) 2014년 푸르메재단에서 '삶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감사와 행복의 의미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이지선 홍보대사



푸르메재단이 설립된 해인 2005년부터 함께 해왔으니 인연을 맺은지도 12년이다 되어갑니다. 재단을 시작하신 백경학 상임이사님과 강지원 이사장님 다음으로 오래된 푸르메인(人) 중 하나이지요. 오래된 인연을 자랑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내세울 것은 함께한 긴 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느라 마음처럼 가까이서, 또 자주 도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라톤에 두 번 참가해봤을 뿐, 선 홍보대사님처럼 꾸준히 철인3종경기에 도전하며 사회 곳곳의 분들을 만나 기부를 이끌어내는 일도 하지 못했구요. 하지만 오랜 시간 푸르메재단이 걸어온 길에 증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재단이 시작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책상 몇 개만 둔 작은 사무실에서 큰 꿈을 꾸며 첫 발걸음을 땀, 적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왜 필요한지 끊임없이 설득해왔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동등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의 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푸르메재단과 함께해오며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4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치료받으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1만 명 시민의 기부로 지어진 '기적의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내 살림보다 더욱 아끼며 투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단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재활을 돕는 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푸르메재단과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푸르메재단이 걸어가는 따뜻한 길에 동행해주시길, 저와 같이 아름다운 일에 증인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 아주 특별한 병원, 문을 열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The Schedule of Day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오래도록 꿈꿔왔던 기적의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마포구 상암동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하루 수백여 명의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알록달록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어린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껏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의 소중한 하루, 따라가 볼까요?

### 9:00 - 10:00 am

#### 제때 필요한 치료를! 재활의학과

뇌성마비로 병원을 찾은 지혜는 물리, 작업, 인지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층 넓은 치료실에서 최신 장비로 걷기와 문 열기, 전등 끄기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훈련합니다. 엄마는 집에서도 지혜와 연습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함께 익히고 치료사와 충분히 상담을 합니다. 소아재활 전문의료진과 치료사들로부터 물리, 작업, 인지, 언어치료 등 포괄적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합니다.

### 10:00 - 11:00 am

#### 발달 전반을 돌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진은 ABA조 기집중치료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30시간 동안 행동, 언어, 작업치료 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기서 배운 행동중재법이 아이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조기집중치료로 아이가 좋아지면 사회성반, 학교준비반과 같은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10:00 am - 4:00 pm

#### 오후에 퇴원하는 낮병동

뇌성마비로 몸을 가누기 힘든 제훈에게는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외래 치료만으로는 치료 시간이 부족하고, 입원 치료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던 제훈이 가족의 선택은 낮병동. 오전에 입원해 6시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고 오후에 퇴원할 수 있어 부담도 덜고, 가족들이 제훈이와 함께할 시간도 늘어나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병실과 화장실이 장애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 12:00 - 1:00 pm

#### 배부른 점심, 가벼운 산책

오전 치료를 마친 아이들과 함께 7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가족들. 가슴이 시원해지는 탁 트인 전망에 외식하는 기분이 듭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따스한 햇살이 드는 옥상정원을 거닐어보기도 합니다.



### 3:00 - 4:00 pm

####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치과

몸이 불편한 이수민 씨가 3층 장애인 전용치과로 들어섭니다. 일반 치과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다 비싸기까지 해 방치했던 아픈 치아를 이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실과 진료실 등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한 공간과 꼼꼼히 검진하는 의료진 덕분에입니다. 전신마취치료실에서는 치료가 시급한 지적장애청년이 수술을 받고 있고, 아이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짬을 내어 온 보호자도 여유롭게 치과 진료를 받습니다.



### 6:00 pm -

#### 어린이들의 꿈이 자라는 입원병동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던 가진이는 입원을 하면서 치료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리, 작업, 언어, 인지, 연하 치료를 받고 음악, 미술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병동 로비에서 걷는 연습을 합니다. 학교준비반 수업은 물론 레고 놀이와 정원 가꾸기처럼 다양한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을 같은 병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다는 가진이가. 1년 동안 치료받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겠죠?



### 5:00 - 6:00 pm

#### 오감을 깨우는 문화체험 한 곳에서

오늘 하루 치료받느라 수고한 제훈이와 엄마는 잠시 1층 열린예술치료실로 걸음을 옮깁니다. 지난 7월 그림동화 원화 전시회를 호기심 가득 둘러본 아이는 이번엔 오페라 콘서트에 푹 빠졌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곳. ‘푸르메를 사랑한 작가초대전’, ‘무대 속 동화세계전’ 등 열린예술치료실의 다음 전시와 공연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 4:00 - 5:00 pm

####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린이들로 늘 북적이는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으며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습니다. 6천여 권에 달하는 장서가 구비된 어린이자료실, 동화구연처럼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이야기방과 레고플레이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에서는 수중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어린이들 옆에서 지역주민들도 수영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영을 마치고 행복한베이커리&카페를 찾는다는 주민 유희영 씨는 장애청년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가 제일 맛있으며 엄지를 치켜드립니다.

# 참 따뜻한 병원 사람들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찾는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진료과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의 힘찬 포부를 들어보세요.

임윤명  
병원장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세워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환아와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병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병원으로서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병원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곳곳에 생겨날 어린이재활병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홍지연  
재활의학과장



입원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이 2개월 집중재활치료를 받고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환아뿐 아니라 부모 교육 중심의 그룹치료와 가족 참여회의(Family Conference)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혜  
정신건강의학과장



어린이의 언어·인지능력과 사회성을 높여주고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발달에 효과적인 근거 기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운영하는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과도한 게임으로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백한승  
치과장



장애인과 어린이 전문치과를 지향하는 치과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 찾아오는 장애인 환자들이 많습니. 환자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구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 치료하고 있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치과 전용 전신마취치료실은 이곳의 자랑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한 치아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정희  
치료실장



“못 가누던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점차 변화되는 모습에 기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늘 가족과 같은 자세로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장애 어린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잘 받아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정숙  
간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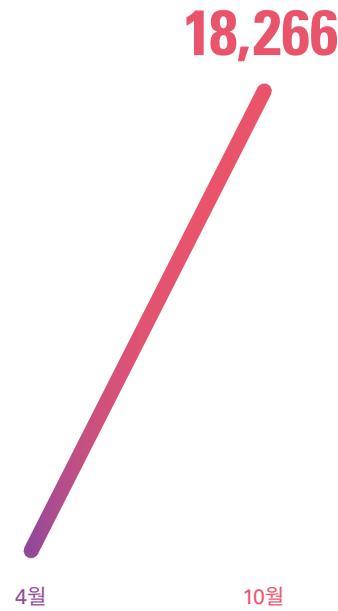


장애를 가진 환아와 보호자에게 재활치료와 맞춤간호로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실에서 받은 치료를 병동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어갈 수 있게끔 알맞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자신감을 갖고 환자의 걸을 지킬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 숫자로 보는 어린이재활병원

2016. 4 - 10  
(3월 말 외래 진료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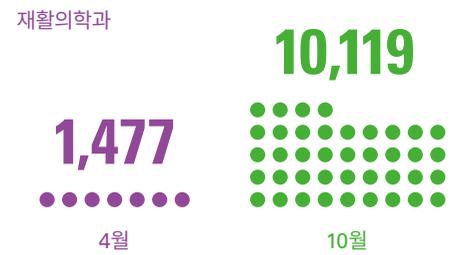
이용환자(명)  
진료 시작부터 누적된 이용자 18,000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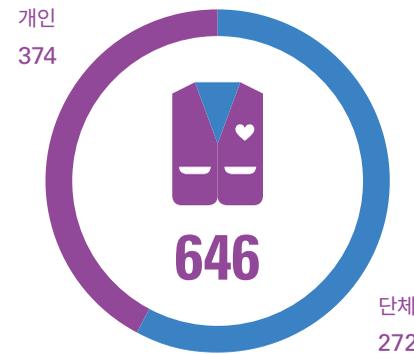
진료(건)  
2016년 연말까지 진료 4,000여 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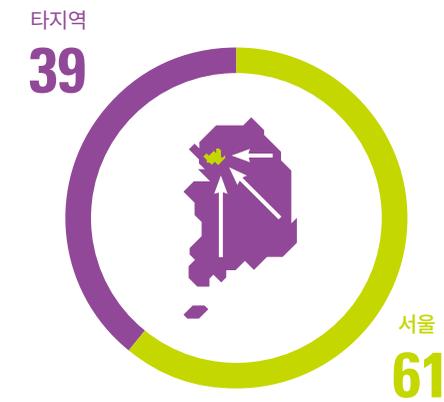
치료(건)  
4월 대비 7배 늘어난 재활의학과 치료, 18배 늘어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4배 늘어난 치과 치료



자원봉사자(명)  
문화 공연, 교구 소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한 분들



이용환자 거주지역(%)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한 이유



# 장애어린이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다

한국존슨앤드존슨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오늘도 장애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푸르메재단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천사기업의 1,004만 원 나눔**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정신질환 환우 돕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기로 유명한 헬스케어 전문기업 한국존슨앤드존슨. 푸르메재단에서는 ‘천사기업’으로 통합니다. 2년째 장애어린이들을 위해 1,004만 원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기부는 2015년, SNS 기부 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세계적 해열 진통제 브랜드 타이레놀 출시 60주년을 기념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통해 모인 1,004만 원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보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무려 6만 3천 명이 동참해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데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캠페인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1,004만 원을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전 직원이 직접 바느질해 만든 유아용 턱받이 100개. ‘행복하세요’라는 태그까지 부착된 턱받이에서 한국존슨앤드존슨 임직원들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운영기금과 유아용 턱받이를 전달하고 있는 한국존슨앤드존슨

**나눔 CEO와 그를 닮은 직원들**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나눔은 김광호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광호 대표는 나눔 CEO라 불릴 만큼 평소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장애어린이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장애어린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2,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며 장애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나눔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사내 봉사대상을 수상한 권연재 과장은 5,000 달러를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한국존슨앤드존슨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전 직원이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고객, 직원, 주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경영철학으로 삼을 만큼 나눔을 중요시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는 임직원들에게서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글 | 대외사업팀 김해승

# 푸르메재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변화

정다정 미디어데이터 코리아 홍보 이사

푸르메재단의 오랜 인연이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조곤조곤한 말씨에 인자한 미소. 한 비영리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 강사로 만난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에 대한 첫 인상입니다. “기자 시절 독일 연수를 마치고 떠난 영국 가족여행에서 내가 한 쪽 다리를 잃었어요”라며 입을 뗀 백 이사는 “한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경험하고 장애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아픈 상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꺼낼 수 없는 마음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백 이사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을 닦던 기억이 납니다. 불행을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은 백 이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삶도 있다’며 열성적으로 백 이사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이후 제가 다니던 외국계 명품 회사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불현듯 백 이사가 떠올랐고,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푸르메재활센터에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언어치료실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푸르메재단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약회사로 옮겼을 때는 직원이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도 함께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미국계 임상 IT 기업 미디어데이터 코리아에서는 소소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벽화를 그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어린이들의 진료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보면 기업과 NGO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푸르메재단과는 아무 탈 없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늘 기업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는 직원들 덕분입니다.

기업의 이름으로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아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일들을 꿈꾸게 되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고민해 봅니다.

# 동전이 빙글빙글, 나눔이 차곡차곡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지구의 탄생부터 생명의 역사까지 광대한 자연사를 만날 수 있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거대한 공룡이 시선을 압도하는 사이, 등글고 묵직한 물체 주변으로 어린이들이 몰려듭니다. 3만여 점의 화석과 암석, 동식물 표본만큼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푸르메재단의 회오리 레이스 동전모금함. 동전이 경주를 펼치듯 돌아가 구멍에 쏙 들어갑니다. 기부를 놀이하듯 즐겁게 만드는 모금함은 전국 박물관을 통틀어 단 하나, 이곳의 명물이 됐습니다.

### 인기만점 동전모금함을 부탁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013년부터 어린이들이 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1·3층에 동전모금함을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동전모금함이 365일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손길들을 거칩니다. 지폐만 있는 이들을 위해 배려, 동전교환기에 동전 가득 채우기. 모금함관리자 장은규 주무관은 박물관 인근의 은행들에 일일이 연락해 동전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꿔옵니다.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요청하면 은행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주기를 짧게 해서 주 1회 10kg씩 두 다발을 갖고 온다고. 종이에 돌돌 말린 동전 뭉치를 살살 풀어 교환기에 탈탈 털어 넣습니다. 어린이들은 “땡그랑-” 소리에 “와-” 함성을 지르더니 동전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 긴 줄도 마다않습니다. 양쪽 투입구에 넣은 동전이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 모습에 박수치며 환호하는 아이들을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지켜봅니다. 안내담당자 김혜민 주무관은 혹

여 아이들이 다치거나 동전모금함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살피기 위해서라고 귀띔합니다. 바로 옆 자연사 도서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타이르고 조율하는 일도 챙겨야 합니다. 집에서 무거운 돼지저금통을 갖고 와 전시 관람 대신 모금 삼매경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슬며시 미소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 또래 친구들을 위한 “나눔은 즐거워”

매월 동전모금함을 개봉할 때면 고사리손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들이 쏟아지며 ‘동전밭’을 이룹니다. 도저히 가능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정성의 무게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주머니에 담아 옮기고 분류하는 작업을 마치면 땀이 맺힙니다. 꼬마 기부자들이 4년간 모아준 기부금은 무려 3천여만 원. 마포구 상암

동 어린이재활병원의 문을 여는 데 당당히 한몫을 했습니다. 동전모금함 관리를 위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좋은 일에 동참해서 기분이 좋다는 장은규 주무관은 “작지만 보탬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라며 웃습니다. 김혜민 주무관은 나눔이 참 쉽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평소에는 와닿지 않는 속담인 ‘티끌 모아 태산’을 실감했어요. 어린이들이 즐겁게 모금에 동참했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음을 먼 훗날 깨닫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들을 위해 신나게 동전을 굴릴 꼬마 기부자들의 활약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글 | 커뮤니케이션팀 정담빈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 02-330-8899

### 관람 시간

3-10월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요일, 공휴일	오전 9:00 - 오후 7:00
11-2월	평일	오전 9:00 - 오후 5:00
	토요일, 공휴일	오전 9:00 - 오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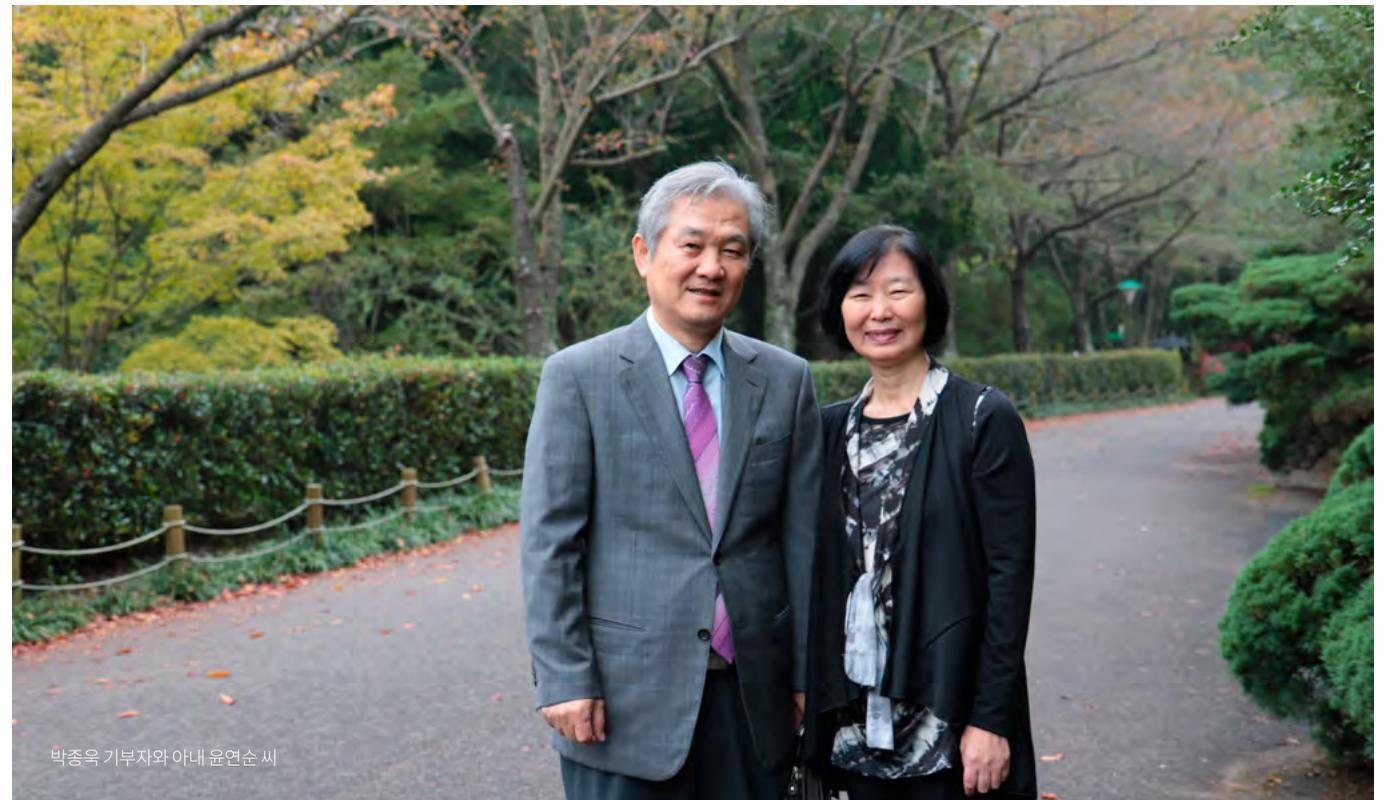
※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회오리 레이스 동전모금함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김혜민 주무관과 장은규 주무관

# 날마다 행복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박종욱 기부자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런 병마로 누워 지내도, 가족에게 장애가 찾아와도, 어린 자녀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27년간 숨을 쉬듯 꾸준히 해온 나눔. 까만 머리가 반백이 되는 동안 든든한 삼촌,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 준 사람, 제주에 심은 나눔의 씨앗을 서울까지 퍼트린 기부자를 만났습니다.



박종욱 기부자와 아내 윤연순 씨

### 고통에서 싹튼 나눔

제주에서 교직생활을 한 박종욱 기부자(63)는 인생의 중대 고비를 나눔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2003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투병하면서 자신처럼 병마와 싸우는 난치병 어린이·청소년들을 수소문해 손수 쓴 격려의 편지와 함께 치료비와 헌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곁에서 헌신적으로 돌봐준 아내 윤연순 씨(62)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아내를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과 꾸준한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마침 어린이재활병원을 짓고 있던 푸르메재단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애어린이에게 작게나마 빛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개원한 어린이재활병원을 찾았을 때의 감격은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합니다. 주변의 따뜻한 관심으로 기적처럼 몸이 회복돼 2015

년 교장으로 정년퇴임할 수 있었다는 박종욱 기부자. 본인과 가족이 혹독하게 아파 봤기에 장애어린이와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 마음의 빛을 삶의 빛으로

품에서 꺼내 보인 3개의 파일첩에는 ‘기부 이력’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원 어린이와 단체들에게서 받은 감사 편지며 기부 증서, 언론 기사까지 고스란히 담긴 흔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께 마음의 빛을 갠기 위해서”라는 박종욱 기부자의 진심을 읽습니다. 나눔의 파장은 자녀들에게도 가닿았습니다. 아들은 푸르메재단의 정기기부자가 되었고, 딸은 해외 어린이와 결연을, 손주들도 기부자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 큰 금액을 기부할 때도 자녀들은 한 목소리로 대찬성을 외쳤습니다.

박종욱·윤연순 부부는 여전히 병원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남은 생애 긴 호흡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일만큼은 놓칠 수 없습니다. “기부하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져요. 매번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기분이 들죠. 나눔은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한 돌 한 돌 건너가다 보면 어느새 건너편 강가에 도달해 있듯, 한 번 두 번 나누다보면 행복의 세계에 와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장애어린이들의 홀로서기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정부와 더 많은 기부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길 바란다는 부부. 그 아름다운 나눔 여정에 푸르메재단이 동행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글 | 커뮤니케이션팀 정담빈

# 웃을 수 있는 이유, 나눔

이수진·이지윤 모녀

### 나눔으로 옴튼 기적

“지윤아, 고리에 걸린 링 한 번 빼볼까?” 치료사 선생님의 주문에 힘껏 링을 움켜쥐는 지윤이. 잠시 멈칫 하더니 링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우리 지윤이 잘 하네. 남은 링도 빼볼까?” 다시 링을 향해 손을 뻗던 지윤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가냘픈 목 한가운데는 호흡기 튜브가 달려 있습니다. 쉼쉼거리며 숨을 쉬던 지윤이가 콜록거리자 엄마 이수진 씨는 재빨리 휴대용 석션용 꺼내 가래를 빼냅니다. 기관지 절개술을 받은 지윤이를 위해 10여 분에 한 번, 잊지 않고 꼭 해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윤이의 치료가 끝나고 어디론가 발길을 재촉하는 이수진 씨. 유모차에 있던 지윤이를 차에 옮겨 태우고, 무거운 유모차를 번쩍 들어 차에 싣습니다.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지윤이를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잠시만 지켜봐도 힘겨워 보이는 일상, 하지만 이수진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효성그룹의 지원으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지윤이에게 서서히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만해도 지윤이가 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수진 씨(38).

아침 일찍 첫째 지훈이(6)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병원으로 향합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둘째 지윤이(3)의 재활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버거운 하루. 하지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주변의 나눔 덕분입니다.

무것도 못했어요. 누워서만 지냈죠. 그런데 요즘 부쩍 허리랑 손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앉기도 하고, 물건을 잡기도 해요. 태어난 직후 하루하루가 고비였던 지윤이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받은 만큼 나누고픈 사랑

이수진 씨는 출산 60일 만에 지윤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윤이가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걸 임신 28주 무렵 알았어요. 수술을 하면 관장을 거란 담당 의사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위급상황이 닥쳤어요.” 지윤이는 태어나자마자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섯 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척추, 발, 눈, 귀 등에 기형이 발견됐습니다. 진단명은 ‘바테르증후군’.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두 아이와 반지하에 어렵사리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상황.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수진 씨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전혀요. 고마운 인연을 만난 저는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효성그룹이 지훈이의 교육비는 물론 가족여행을 지원해줬어요.” 지윤이, 지훈이가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이수진 씨.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나눌 형편이 아니다보니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네일 아티스트였거든요. 앞으로 재능기부도 하고 싶어요. 제가 나누면, 아이들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이수진 씨는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며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엄마. 두 남매는 그런 엄마만큼이나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글 | 커뮤니케이션팀 김금주



효성은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장애어린이 가족여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지윤 모녀

### 푸르메재단 기부·증액 문의

전화 02-6395-7008, 7004  
 팩스 02-720-7025  
 이메일 hope@purme.org  
 우편 03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푸르메재단 모금사업팀

### 기부계좌

국민 870301-04-013107  
 KEB하나 630-005390-913  
 우리 1005-600-989825  
 농협 301-0027-7538-11  
 기업 024-062367-01-018

함께 이룬 기적  
기적에 함께한 당신  
참 고맙습니다.